https://doi.org/10.5392/JKCA.2018.18.05.579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와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Elementary Schoolers'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and Playfulness on School Happiness

강형길*, 조진호**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Hyoung-Kil Kang(hkilkang@kyungnam.ac.kr)*, Jin-Ho Cho(75jino@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와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I 광역시의 5개 초등학교 300명의 초등학생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278부의 설문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탐색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모든 연구변인들은 상호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표현성은 학교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놀이성의 신체적 활기요인은 학교행복감의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그리고 전반적 학교행복감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성의 정신적 자발성 요인은 교사관계 전반적 학교행복감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회귀계수 분석결과, 체육수업태도가 놀이성에 비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 및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최초의 국내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내 초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 중심어 : | 초등학생 | 체육수업태도 | 놀이성 | 학교행복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and playfulness influence school happiness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er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00 students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I city. After the exclusion of 22 incomplete questionnaires, a total of 27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the data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every subset of variables of the study was positively inter-correl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ental fluidity playfulness positively influenced every subset of school happiness variables. Physical animation playfulness positively influenced self-respect school happiness, optimism school happiness, and overall school happiness. Mental spontaneity positively influenced teacher relationship school happiness and overall school happiness.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positively influenced every subset of school happiness variables, and based on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influenced school happiness variables more so than did playfulness. The findings indicate that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and playfulness are important contributors for improving Korean elementary students' school happiness, a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and playfulness in Korean elementary schoolers.

■ keyword : | Elementary Schoolers |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 Playfulness | School Happiness |

접수일자 : 2018년 04월 11일
수정일자 : 2018년 05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17일
교신저자 : 조진호, e-mail : 75jino@hanmail.net

Ⅰ. 서 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존재의 의미이자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노력한다[1]. 특히 초등학생에게 있어 행복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성인기의 행복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2],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학생은 학교폭력, 비행행동, 게임중독과 같은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하지만 국내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높지 않다. 전국 1,496명의 초등학생 대상 행복감 설문조사 결과, 48%의 초등학생만이 행복하다고 답했으며[7],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은 국제비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지수(well-being indices)는 OECD회원국 중 8년 연속(2009년부터 2016년 까지)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9].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행복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행복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며[10][11], 학교행복감은 학교라는 상황에서 인지하는 행복감을 말한다. 그럼 국내 초등학생들의 학교행복감은 어떠한가? 세계 50개국 60만 명 학생(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에서 국내 학생들은 과학성취도 1위 수학성취도 2위를 획득하였다[12]. 하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흥미도는 50개국 중에 최하위권(과학 48위, 수학 50위)에 머물고 있다. 즉 국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 내적동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12]. 내적동기에 의해 발현된 행동은 인간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흥미와 무관한, 과학과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국내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행복감은 학교 밖 행복감(가정, 여가시간 등)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14].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행복감 연구는 일반적인 행복감 연구에 비해 제한적이며, 초등학생 대상 학교행복감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15]. 이에 본 연구는 국내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을 연구주제로 삼았으며, 국내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와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활동참여가 다양한 정신건강 변인 및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6-18]. 또한 현재의 교육당국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19-21], 특히 체육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은 중심적인 신체활동 증진 기전이고[22],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23]. 이에 체육수업참여횟수와 긍정적 심리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최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과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24-26].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육수업참여는 학생들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당 3회 이상의 체육수업 참여가 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24]. 그러나 체육수업참여횟수가 아닌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다[27]. 수업태도는 수업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수업참여의 적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며[28], 체육수업태도는 체육수업에 대한 수업태도이다. 계획된 행동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에 의하면 태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7], 체육수업참여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체육수업태도 또한 학교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태도와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놀이에 관한 연구는 발달심리학의 중요한 주제이며, 놀이(play)는 아동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겪게 되는 압박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기쁨, 행복감, 만족감 등)를 증가시킨다[29]. 놀이성(playfulness)은 이러한 놀이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활동을 놀이로 인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심리적 성향으로 간주되고 있다[30][31]. 이러한 놀이성은 아동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놀이성이 뛰어난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원활한 소통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33]. 또한, 놀이성이 뛰어난 아동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학업성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나아가 놀이성은 분노와 불안 조정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특히 놀이성은 전 생애에 걸쳐 행복감과 심리적 웰빙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즉 아동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며, 초등학생의 놀이성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국내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와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국내 초등학생들의 학교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OECD국가 최하위권인 국내 초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놀이성은 학교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초등학생들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I 광역시 소재 5개 초등학교 학생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교사가 수행하였으며, 교사는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 하였다.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표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 중 일부 누락된 22명의 자료를 제외한 278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이(n=278)		11.93	8.76
키(n=267)		146.1	12.31
몸무게(n=258)		39.11	8.97
성별	남자 (n=126, 45.7%)		
	여자 (n=150, 54.3%)		
아버지 교육수준 (n=264)	초등학교 졸업 (n=0, 0.00%)		
	중학교 졸업 (n=1, 0.40%)		
	고등학교 졸업 (n=49, 17.6%)		
	대학교 졸업 (n=197, 70.9 %)		
	석사 (n=15, 5.4%)		
	박사 (n=2, 0.70%)		
어머니 교육수준 (n=262)	초등학교 졸업 (n=2, 0.70%)		
	중학교 졸업 (n=2, 0.70%)		
	고등학교 졸업 (n=57, 20.5%)		
	대학교 졸업 (n=196, 70.5%)		
	석사 (n=5, 1.8%)		
	박사 (n=0, 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변인별 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요인 추출은 주성분분석 중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5이상을 요인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증은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분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의 놀이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Staempfli[36]가 개발한 놀이성 척도(20문항)를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여가학 전공 교수가 번안하였으며, 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14문항의 놀이성 문항(리커드 5점 척도, 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을 선정하였다. 초등학생의 놀이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37]에서 제시된 4요인 유머관점, 감정표현성, 신체적 활기, 정신적 자발성으로 요인화 되었다. 요인적재량은 유머관점 .536-.793, 감정표현성 .756-.829, 신체적 활기 .756-.829, 정신적 자발성 .600-.753으로 모든 문항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 설명력은 65.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s α값은 유머관점 .842, 감정표현성 .783, 신체적 활기 .783, 정신적 자발성 .610으로, 요인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이며 KMO는 .855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놀이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체육수업태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38]이 개발하고 오중근[39]이 활용한 수업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체육수업태도 설문지는 총 8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 문항(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8개 문항이 단일 요인으로 요인화 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583-.843으로 모든 문항이 .50이상을 보였다. 누적 설명력 또한 55.51%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 .880으로 나타나 체육수업태도 요인의 신뢰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1014.557일 때 유의확률은 .000

표 2. 놀이성 요인분석

항목	유머 관점	감정 표현성	신체적 열정	정신적 자발성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기거나 농담거리를 찾는 편이다.	**.818**	.235	.104	.111
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96**	.039	.104	.246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머러스하거나 코믹한 것을 찾을 수 있다.	**.792**	.282	.193	.124
나는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604**	.454	.208	-.027
나는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다.	.185	**.793**	.165	.046
내가 기분이 좋거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알아차린다.	.173	**.766**	.209	.155
행복할 때, 나는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096	**.718**	.083	.403
대부분의 상황에, 나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다.	.258	**.536**	.161	.162
나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163	.302	**.829**	-.028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181	.143	**.771**	.154
나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에 동기부여 되고 자극 받는다.	.115	.100	**.756**	.174
나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재밌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146	.271	-.051	**.753**
나는 머리를 사용하는 놀이나 아이디어 게임을 좋아한다.	.460	.054	.204	**.609**
나는 내가 다른 성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좋아한다.	.046	.165	.344	**.600**
고유값	5.474	1.434	1.256	1.041
분산	39.098	10.240	8.975	7.439
누적 분산	39.098	49.338	58.313	65.752
신뢰도	.842	.783	.783	.610
Kaiser-Meyer-Olkin 측도=.85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493.981, df=91, sig=.000				

표 3. 체육수업태도 요인분석

항목	수업태도
체육수업은 개인적, 사회적인 책임감을 길러준다.	**.843**
체육수업은 생활에 도움을 준다.	**.818**
체육수업은 사회생활에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준다.	**.794**
체육수업은 이해심을 길러주고,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	**.785**
체육수업을 통해, 집단에서의 질서를 배울 수 있다.	**.734**
체육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97**
체육수업이 다른 과목에 비교하여 중요하고 생각한다.	**.672**
체육수업은 운동능력에 관계없이 즐겁다	**.583**
고유값	4.441
분산	55.512
누적 분산	55.512
신뢰도	.880
Kaiser-Meyer-Olkin 측도=.89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014.557, 자유도=28, 유의확률=.000	

이고 KMO는 .89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행복감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강영하[40]가 개발한 학교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 행복감 설문지는 총 17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 문항(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행복감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이 .05미만으로 나타난 2개 문항('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는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을 제외한 후, 15개 문항을 대상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영하[40], 김종백과 김태은[41]의 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요인 즉, 자기조절감, 낙천주의,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요인화 되었다. 요인적재량은 자기조절감 .567-.836, 낙천주의 .531-.698, 교사관계 .612-.801, 친구관계 .657-.695로 모든 문항이 .50이상으로 나타났고, 추출된 요인들 4개가 전체 입력변수의 63.03%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Chronbach's α값)를 살펴보면 자기조절감 .839, 낙천주의 .700, 교사관계 .720, 친구관계 .680을 보였으며, 요인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1480.824일 때 유의확률은 .000이고 KMO는 .89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행복감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행복감 요인분석

항목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나는 똑똑하다.	**.836**	.117	.086	.084
나는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다.	**.771**	.132	.175	.267
나는 맡은 일을 잘 해낸다.	**.660**	.397	.092	.233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592**	.235	.318	.067
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신 있다.	**.567**	.317	.254	.266
나는 학교에서 기쁠 때가 많다.	.240	**.698**	.249	.018
나는 학교에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122	**.626**	.015	.318
나는 다른 학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 오지 않으면 함께 사용하거나 빌려준다.	.289	**.588**	-.078	.371
나는 학교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367	**.531**	.487	-.075
나는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한다.	.143	-.056	**.801**	.138
나는 선생님과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마음 놓고 한다.	.225	.115	**.753**	.186
나는 선생님과 놀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103	.433	**.612**	.215
나는 학교에서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083	.301	.195	**.695**
나는 학교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	.205	.326	.148	**.691**
나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431	-.176	.239	**.657**
고유값	5.991	1.296	1.131	1.035
분산	39.943	8.642	7.543	6.901
누적 분산	39.098	48.585	56.128	63.029
신뢰도	.839	.700	.720	.681
Kaiser-Meyer-Olkin 측도=.89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480.824, df=105, sig=.000				

Ⅲ. 연구결과

1.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놀이성, 체육수업태도, 학교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체육수업태도,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유머관점, 감정표현성, 육체활동, 정신적 자발성, 놀이성, 학교행복감의 하위변인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행복감의 모든 변인 간에는 .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될 변인들 간 값이 모두 .8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머관점, 감정표현성, 신체적 활기, 정신적 자발성을 놀이성의 한 그룹, 체육수업태도를 한 그룹의 독립변인으로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행복감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수치가 2에 가까운 통계량 독립성 만족), 다중공선성 공차한계(Multicollinearity Tolerance), 다중공선성 분산팽창계수(Multicollinearity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증하였으며, 부적합한 회귀모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정표현성은 자기존중감에 정적인 영향(β=.500, t=7.571, p<.001, R^2=.325)을, 신체적 활기 역시 자기존중감에 정적인 영향(β=.140, t=2.354, p<.05, R^2=.32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감정표현성이 신체적 활기에 비해 자기존중감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낙천주의 학교행복감에도 감정표현성(β=.472, t=7.106, p<.001, R^2=.318)과 신체적 활기(β=.223, t=3.740, p<.001, R^2=.318)가 동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감정표현성이 신체적 활기에 비해 낙천주의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학교행복감에는 감정표현성(β=.298, t=4.084, p<.001, R^2=.175)과 정신적 자발성 역시 교사관계 학교행복감에 정적인 영향(β=.173, t=2.486, p<.05, R^2=.1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감정표현성이 정신적 자발성에 비해 교사관계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학교행복감에는 감정표현성만이 정적인 영향(β=.404, t=5.628, p<.001, R^2=.2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행복감에는 감정표현성(β=.516, t=8.108, p<.001, R^2=.374)과 신체적 활기가 정적인 영향(β=.152, t=2.657, p<.01, R^2=.374)을 미치고 있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

표 5.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 체육수업태도	1	.305**	.477**	.505**	.392**	.541**	.516**	.517**	.460**	.441**	.599**
(2) 유머관점		1	.536**	.427**	.504**	.802**	.295**	.266**	.215**	.244**	.315**
(3) 감정표현성			1	.454**	.506**	.789**	.556**	.532**	.389**	.445**	.594**
(4) 신체적 활기				1	.390**	.744**	.356**	.393**	.257**	.249**	.387**
(5) 정신적 자발성					1	.759**	.324**	.302**	.325**	.261**	.377**
(6) 놀이성						1	.486**	.473**	.369**	.381**	.529**
(7) 자기존중감							1	.638**	.507**	.585**	.837**
(8) 낙천주의								1	.482**	.506**	.808**
(9) 교사관계									1	.493**	.787**
(10) 친구관계										1	.795**
(11) 학교행복감											1

**p<.01

면, 감정표현성이 신체적 활기에 비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체육수업태도는 가각의 종속변인인 자기존중감(β=.507, t=9.660, p<.001, R^2=.258), 낙천주의(β=.510, t=9.715, p<.001, R^2=.260), 교사관계(β=.459, t=8.463, p<.001, R^2=.210), 친구관계(β=.433, t=7.875, p<.001, R^2=.187), 학교행복감(β=.592, t=12.040, p<.001, R^2=.350)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존중감에는 체육수업태도(β=.346, t=5.684, p<.001, R^2=.318)와 놀이성(β=.299, t=4.913, p<.001, R^2=.318)이, 낙천주의에는 체육수업태도(β=.366, t=6.000, p<.001, R^2=.316)와 놀이성(β=.275, t=4.519, p<.001, R^2=.316)이, 교사관계에는 체육수업태도(β=.364, t=5.622, p<.001, R^2=.227)와 놀이성(β=.171, t=2.640, p<.001, R^2=.227)이, 친구관계에는 체육수업태도(β=.322, t=4.920, p<.001, R^2=.213)와 놀이성(β=.202, t=3.086, p<.001, R^2=.213)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교행복감에 있어서도 체육수업태도(β=.436, t=7.701, p<.001, R^2=.409)와 놀이성(β=.292, t=5.157, p<.001, R^2=.409)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체육수업태도가 놀이성에 비해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행복감에 대해 모두 영향

표 6.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공차	VIF	F	R^2
자기존중감 (M=3.37, SD=.78)	유머관점(M=3.10, SD=1.01)	−.046	−.712	.628	1.591	30.879	.325
	감정표현성(M=3.75, SD=.84)	.500	7.571***	.603	1.659		
	신체적 활기(M=3.46, SD=1.01)	.140	2.354*	.743	1.345		
	정신적 자발성(M=3.48, SD=.88)	.034	.536	.663	1.508		
낙천주의 (M=3.78, SD= .81)	유머관점(M=3.10, SD=1.01)	−.082	−1.258	.628	1.591	29.928	.318
	감정표현성(M=3.75, SD=.84)	.472	7.106***	.603	1.659		
	신체적 활기(M=3.46, SD=1.01)	.223	3.740***	.743	1.345		
	정신적 자발성(M=3.48, SD=.88)	.001	.017	.663	1.508		
교사관계 (M=2.88, SD=.91)	유머관점(M=3.10, SD=1.01)	−.067	−.944	.628	1.591	13.632	.175
	감정표현성(M=3.75, SD=.84)	.298	4.084***	.603	1.659		
	신체적 활기(M=3.46, SD=1.01)	.078	1.184	.743	1.345		
	정신적 자발성(M=3.48, SD=.88)	.173	2.486*	.663	1.508		
친구관계 (M=3.38 , SD=.80)	유머관점(M=3.10, SD=1.01)	−.017	−.235	.628	1.591	16.138	.201
	감정표현성(M=3.75, SD=.84)	.404	5.628***	.603	1.659		
	신체적 활기(M=3.46, SD=1.01)	.053	.825	.743	1.345		
	정신적 자발성(M=3.48, SD=.88)	.047	.693	.663	1.508		
학교행복감 (M=3.35 , SD=.66)	유머관점(M=3.10, SD=1.01)	−.067	−1.071	.628	1.591	38.347	.374
	감정표현성(M=3.75, SD=.84)	.516	8.108***	.603	1.659		
	신체적 활기(M=3.46, SD=1.01)	.152	2.657**	.743	1.345		
	정신적 자발성(M=3.48, SD=.88)	.084	1.393	.663	1.508		

*p<.05, **p<.01, ***p<.001

표 7.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공차	VIF	F	R^2
자기존중감(M=3.37, SD=.78)	체육수업태도(M=3.77, SD=.75)	.507	9.660***	1.000	1.000	93.309	.258
낙천주의(M=3.78, SD= .81)	체육수업태도(M=3.77, SD=.75)	.510	9.715***	1.000	1.000	94.391	.260
교사관계(M=2.88, SD=.91)	체육수업태도(M=3.77, SD=.75)	.459	8.463***	1.000	1.000	71.620	.210
친구관계(M=3.38 , SD=.80)	체육수업태도(M=3.77, SD=.75)	.433	7.875***	1.000	1.000	62.010	.187
학교행복감(M=3.35 , SD=.66)	체육수업태도(M=3.77, SD=.75)	.592	12.040***	1.000	1.000	144.957	.350

***p<.001

표 8.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공차	VIF	F	R^2
자기존중감(M=3.37, SD=.78)	체육수업태도(M=3.77, SD=.75)	.346	5.684***	.723	1.384	59.418	.318
	놀이성(M=3.44, SD=.72)	.299	4.913***				
낙천주의(M=3.78, SD= .81)	체육수업태도(M=3.77, SD=.75)	.366	6.000***	.723	1.384	58.815	.316
	놀이성(M=3.44, SD=.72)	.275	4.519***				
교사관계(M=2.88, SD=.91)	체육수업태도(M=3.77, SD=.75)	.364	5.622***	.723	1.384	37.518	.227
	놀이성(M=3.44, SD=.72)	.171	2.640**				
친구관계(M=3.38, SD=.80)	체육수업태도(M=3.77, SD=.75)	.322	4.920***	.723	1.384	34.406	.213
	놀이성(M=3.44, SD=.72)	.202	3.086**				
학교행복감(M=3.35, SD=.66)	체육수업태도(M=3.77, SD=.75)	.436	7.701***	.723	1.384	88.392	.409
	놀이성(M=3.44, SD=.72)	.292	5.157***				

**p<.01, ***p<.001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표 8]에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생들의 놀이성은 학교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며,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의 놀이성은 학교행복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귀분석결과,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표현성(emotional fluidity)은 학교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놀이성의 신체적 활기(physical animation)요인은 학교행복감의 자기존중감, 낙천주의, 그리고 전반적 학교행복감 요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성의 정신적 자발성(mental spontaneity) 요인은 교사관계 학교행복감요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며, 놀이는 아동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삶의 행복감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42].

놀이성은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성향이다[43]. 놀이성이 부족한 초등학생은 교사나 급우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들에 있어, 놀이적 요소를 감지하지 못하고, 일로 치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놀이성이 뛰어난 학생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 놀이적 요소를 쉽게 감지하며, 삶 속에서 기쁨의 요소를 쉽게 찾고[44],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나 생각을 놀이에 반영하여 행복한 경험을 할 것이다[45]. 이러한 놀이성과 삶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즉 놀이성이 뛰어난 초등학생은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놀이적 요소를 찾아내고, 놀이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놀이성의 감정표현성은 학교행복감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표준화회귀계수 값에 의하면 학교행복감 증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놀이성 요소로 볼 수 있다. Barnett[46]은 놀이성이 인간의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이라고 했으며, 놀이성의 감정표현성(emotional fluidity)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47]. 본 연구의 감정표현성 문항은 '내가 기분이 좋거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알아차린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다', '행복할 때, 나는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 한다', '나는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다'이다. 초등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감정을 표현하기, 옆 사람과 미소 짓기 등의 교수법을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전반적인 학교행복감 요인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향이며[27], 체육수업태도는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냄을 의미한다. 최근 몇몇 소수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4-26].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도 체육이 행복감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체육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고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체육수업참여횟수가 아닌 체육수업태도를 학교행복감의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체육태도는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와 노년기를 포함한 삶의 전 시기에 걸쳐 신체활동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체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본 연구는 이러한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며, 초등학교 시기의 행복감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2]를 고려할 때, 체육수업태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고 하겠다.

또한 체육수업참여횟수 즉 체육수업시수와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살핀 기존 연구는 국가체육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책의 결정권이 없는 학교현장의 교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다.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심리적 변인인 동시에 학습된 성향(learned predisposition)이다[27]. 즉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되는 것이며, 초등교사의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수업태도와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살핀 본 연구는 현장의 초등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룬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아닌 학교행복감을 측정하였다. 학교행복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평가 혹은 학교 내에서의 높은 수준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국내 초등학생들은 치열하고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은 가정과 여가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국내 초등학생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행복감 증진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생들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며, 표준화회귀계수에 의하면, 체육수업태도가 놀이성에 비해, 학교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소 및 전반적인 학교행복감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놀이성은 내면적 성향으로, 부모의 양육형태, 부모와의 대화패턴, 또래관계, 사회적 능력, 사회인구학적요인 등과 같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50][52]. 즉 초등교사가 놀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학교 밖 다양한 영역에 의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체육수업태도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학습되어지는 체육수업에 대한 경향성[28]이며, 체육수업태도의 형성에 있어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 밖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역량과 교수법에 의해 체육수업태도는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51], 학교현

장의 제한된 자원을 긍정적 체육수업태도 형성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장적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놀이성 보다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증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체육수업태도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육수업태도가 놀이성에 비해 학교행복감 증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2], 국내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행복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신성철,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4권, 제2호, pp.265-280, 2015.

[2] D. R. Entwisle and L. A. Hayduk, "Lasting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Vol.61, No.3, pp.147-159, 1988.

[3] A. Y. Kim and M. H.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and highschool,"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2, pp.423-441, 2008.

[4] J. Ainley, J. Foreman, and M. Sheret, "High school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to remain in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85, No.2, pp.69-80, 1991.

[5] X. Chen and B. S. Li,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Development significance for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24, No.4, pp.472-479, 2000.

[6] S. M. Suldo and E. S. Huebner,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19, No.2, p.93, 2004.

[7]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 2008.12.12.

[8]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92.

[9]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10] A. Kozma, S. Stone, and M. J. Stones, Stability in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subject-wellbeing(SWB): Implications for SWB structure, In Diener E.(Ed.) *Advanced in qualities of life injury and research*. Dordrecht, The Netherlands: Kouwer, 2000.

[11] R. Veenhoven, "Is happiness a trai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32, No.2, pp.101-160, 1994.

[12] 김수진, 동효관, 박지현, 김지영, 진의남, 서지희, 김민정, *TIMSS 2011 결과에 따른 수학·과학 교육 현황 국제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7-2, 2013.

[13] A. W. Bailey, H. K. Kang, and C. Schmidt, "Leisure routine and positive attitudes: age-graded comparisons of the path to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8, No.3, pp.189-209, 2016.

[14]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149-188, 2012.

[15] 유신복, 손원숙,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0권, 제1호, pp.179-200, 2013.

[16] R. Norris, D. Carroll, and R. Cochranc,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training on psychological stress and well-being in an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6, No.1, pp.55-65, 1992.

[17] R. W. Motta, M. E. McWilliams, and J. T. Schwartz, “The role of exercise in reducing childhood and adolescent PTSD,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Vol.28, No.3, pp.224-238, 2012.

[18] H. G. Kang, *Exploring how dimensions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relate to quality of life percep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Cities, 2010.

[19] 오대균, 이기대, “학교스포츠클럽 우수 운영 사례를 통한 교육적 운영 특성, 효과 및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pp.55-79, 2014.

[20] 허창혁, 오교문,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51-70, 2013.

[21] 한정규, 허원석,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pp.31-43, 2013.

[22] 송경미, 박형란, 이태구, 이한주, “현장관찰도구를 이용한 체육시간과 점심시간 신체활동비교,”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12권, 제2호, pp.53-64, 2010.

[23] M. K. Tappe and C. Burgeson, “Physical education: A cornerstone for physically active lifestyle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23, No.4, pp.281-299, 2004.

[24] 이승엽, 송승혁, 조강옥, “중고등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체육수업 참여와의 관련성,” 코칭능력개발지, 제17권, 제2호, pp.23-30, 2015.

[25] 오정우, 권현진, 이온, 우승석, 송봉길, 조강옥, 김연수, “한국 청소년의 체육수업 참여와 주관적 행복 인지의 연관성,”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3호, pp.219-230, 2015.

[26] 남광우, 최영준, 강형숙,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업만족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5권, 제6호, pp.943-955, 2016.

[27]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1975.

[28] 이향원, *학생중심 토의수업과 교사중심 토의 수업이 학습능력에 따라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0.

[29] 강준호, *놀이중심 유아 체육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0] N. J. Lieberman,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7.

[31] B. Chandler, “Where do you want to play? Play environments: An occupational therapy perspective,” In Chandler, B. E. (Ed.), *The essence of play: A child's occupation* (pp.159-175), Bethesda, MD: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Inc, 1997.

[32] K. M. Christian, *The construct of playfulness: Relationships with adaptive behaviors, humor, and early play ability*,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12.

[33] S. Jenkinson, *The genius of play: Celebrating the spirit of childhood*, Hawthorn Press, 2001.

[34] K. S. Meador, “Emerging rainbow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reativity in preschooler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Vol.15, No.2, pp.163-181, 1992.

[35] G. S. Moran, "Some functions of play and playfuln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42, No.1, pp.11-29, 1987.

[36] R. T. Proyer, "To love and play: Testing the association of adult playfulness with the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urrent Psychology, Vol.33, No.4, pp.501-514, 2014.

[37] M. B. Staempfli, *Adolescent playfulness, leisure, and well-be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2005.

[38]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체육교육 평가체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개발원, 1992.

[39] 오중근,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배려가 학생의 자기통제력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14, 2017.

[40] 강영하,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219-235, 2012.

[41] 김종백, 김태은,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259-279, 2008.

[42] 김영진, 김영환, 김영선, "초등학생의 놀이 활동 실태 및 요구분석," 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21-141, 2007.

[43] L. A. Barnett,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Vol.4, No.6, pp.51-74, 1991.

[44] 유한나, 엄정애, "교사의 놀이 개입에 대한 유아의 생각과 기대,"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pp.255-284, 2014.

[45] 신은수, 김은정, 유영의, "유치원의 실외놀이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1권, 제2호, pp.200-228, 2012.

[46] L. A. Barnett,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2, No.2, pp.138-153, 1990.

[47]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제33권, 제2호, pp.69-89, 2012.

[48] L. Kjønniksen, I. Fjørtoft, and B. Wold, "Attitude to physical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organized youth sports during adolescence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in young adulthood: A 10-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Vol.15, No.2, pp.139-154, 2009.

[49]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29-144, 2009.

[50] 최태산, 조미정,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제13권, 제2호, pp.31-45, 2010.

[51] 황선희, 박익렬, "교사의 체육수업지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pp.449-456, 2008.

[52] 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아동 놀이성향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606-620, 2017.

저 자 소 개

강 형 길(Hyoung-Kil Kang) 정회원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체육학석사)
- 2010년 9월 : University of Minnesota(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경남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삶의 질, 체육교육, 스포츠건강심리학

조 진 호(Jin-Ho Cho) 정회원

- 2009년 2월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8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관심분야> : 교과교육, 교수학습, 교육정책